



임용고사 합격을 위한



유아임용

최종 합격

♡ 유임정 9기 - 합.격.수.기. ♡

수강생명	♥♥경		수강방식	직강
응시지역	서울		병행 여부	1-2월 일병행, 3월부터 올인
공부경력	초수		등수	서울 6등
점수	1차	교육과정: 64 논술: 17	2차	수업실연: 40.63 면접: 35.20 과정안: 13.80

좌우명	하고자 마음 먹었으면 제대로 하자!
-----	---------------------

1. 시기별 (월별 혹은 강좌별) 공부 계획 및 방법 (유임정 강의 활용 방법)

저는 초수로, 박수민 교수님의 연팩과 논술강의, 2차 강의를 모두 직강으로 수강했습니다.

[1-2월] 공부습관 기르기

- ♣ 1-2월에는 일을 병행하고 있어 수강한 내용을 암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강의 진도를 따라서 암기하지 못하고 시간이 되는대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암기했습니다. 평일에는 시간이 없어 강의 전 확인학습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했고, 일요일에는 독서실에서 공부시간을 점점 늘리며 공부습관을 들였습니다. 공부하는 중에는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처음에는 집에 핸드폰을 두고 다니다가, 사물함을 결제해 사물함에 넣어두고 공부했습니다.
- ♣ 임용을 처음 도전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얼마나 암기해야하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책에 있는 문장을 토씨하나 안 틀리고 외워야한다는 강박에 개념 하나 암기하는 것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수험생들의 마음을 어떻게 딱딱 알아맞히시는지 강의시간에 책에 쓰인 그대로 암기하는 것이 아닌 개념을 이해하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나의 말로 풀어내는 것이라고 말씀해주셔서 점점 암기에 대한 감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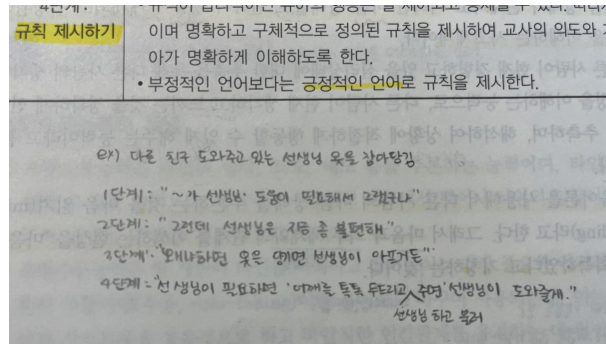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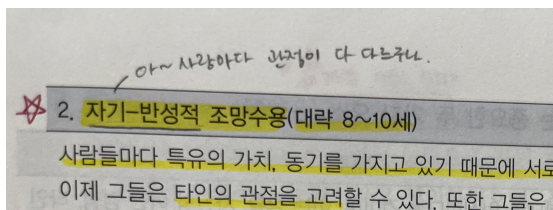
[3-6월] 차곡 차곡 실력 쌓기

1) 백지인출하기

- ♣ 일을 그만두고 3월부터는 올인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집중이 힘들어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였습니다. 이때부터는 각론 강의가 시작되어서 그 주에 들었던 각론 강의와 1,2월 개론강의 내용을 함께 암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의 수업내용을 제가 암기하기 편한대로 다시 체계를 잡아 저만의 단권화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개론 첫 수업내용부터 최근 수업내용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처음부터 끝까지 백지쓰기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만약 시간이 부족해서 다 하지 못하면 못한 부분은 다음날 다시 백지쓰기를 했습니다.
- ♣ 처음에는 백지쓰기를 할 때에도 모든 글자를 다 적으며 인출하였는데, 백지쓰기를 반복할 수록 그냥 직선을 그으면서도 머리로는 내용을 생각하며 빠르게 인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강의 속 교수님의 말을 놓치지 말자!

- ♣ 강의시간에는 최대한 강의에 집중하고, 교수님이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 들어주시는 내용이나 추가설명도 모두 적어두려고 노력했습니다. 교수님께서 개념을 설명해주실 때 구체적인 상황이나 발문, 예시 등을 이용해 설명해주시기 때문에 추후에 내용을 정리할 때 필기한 내용을 보면 강의시간에 교수님이 설명해주시던 것이 자연스레 떠올라 혼자 공부할 때 개념 이해에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단권화 자료에도 예시를 함께 적어 암기하였습니다.



교수님 말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연필로 알아볼 수만 있는 글씨로 빠르게 필기하였습니다.

3) 예외 없이 계획 지키기

- ♣ 공부시간은 3월부터 매일 시간표에 따라서 공부하였고, 예외를 두지 않고 제가 정한 시간을 지켰습니다. 예외를 두게 되면 점점 흐트러지고 예외를 두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 같아 많이 아픈 것이 아니면 무조건 시간을 지켜 공부했습니다.
- ♣ 1년 동안은 친구들과의 약속이나 가족모임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실컷 놀아야지. 노는 건 내년에도 할 수 있지만 공부시간은 지금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니 놀고 싶은 마음도 잘 생기지 않았습니다.

08:30-09:30	고시문
09:30-13:30	공부
13:30-14:00	점심식사
14:00-19:30	공부
19:30-20:30	저녁식사
20:30-22:30	법, 안전, 해이실

- ♣ 점심은 간단히 김밥이나 샌드위치를 먹어 시간을 많이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대신 밥 먹는 시간에는 자료 같은 것은 보지 않고 밥만 먹었습니다.
- ♣ 쉬는 시간은 정해두지 않고 화장실 가는 시간을 숨 돌리는 시간으로 사용했습니다.
- ♣ 이 시기에는 개론은 한 단원 인출하는데 2시간, 각론은 한 영역에 4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4) 고시문과 해이실

- ♣ 문장을 그대로 암기해야하는 고시문은 유튜브에 노래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이용해 씻거나 이동하는 시간에 틈틈이 듣고 노래로 부르며 암기하였습니다.
- ♣ 해설서, 이해, 실행자료의 내용도 정리하여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읽고,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암기하였고, 놀이사례는 이론에서 배운 내용을 대입시키며 보았습니다.

3) 책이나 이야기를 통해 상상하기를 즐긴다.

내용범주	내용
듣기와 말하기	말이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는다.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한다. → 듣기가 교재나(듣기)를 교재에 적용한 언어, 문장 형태 상황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말한다. → 듣기가 교재나(듣기)를 교재에 적용한 언어, 문장 형태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해서 말한다. → 듣기가 교재나(듣기)를 교재에 적용한 언어, 문장 형태 배운 태도로 듣고 말한다. → 1. 말 듣기의 듣기 / 2. 듣기의 듣기 (듣기)를 교재에 적용한 언어, 문장 형태 고운 말을 사용한다. → 1. 듣기의 듣기 / 2. 듣기의 듣기 (듣기)를 교재에 적용한 언어, 문장 형태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말과 글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다. → '읽기의 듣기', '읽기의 듣기'를 교재에 적용한 언어, 문장 형태 주변의 상징, 글자 등의 읽기에 관심을 가진다. → '읽기의 듣기', '읽기의 듣기'를 교재에 적용한 언어, 문장 형태 자신의 생각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표현한다. → '읽기의 듣기', '읽기의 듣기'를 교재에 적용한 언어, 문장 형태
책과 이야기 즐기기	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하기를 즐긴다. → '읽기의 듣기', '읽기의 듣기'를 교재에 적용한 언어, 문장 형태 동화, 동사에서 말의 재미를 느낀다. → '읽기의 듣기', '읽기의 듣기'를 교재에 적용한 언어, 문장 형태 말놀이와 이야기 짓기를 즐긴다. → '읽기의 듣기', '읽기의 듣기'를 교재에 적용한 언어, 문장 형태

- ♣ 고시문 옆에 해설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적어두고, 고시문을 인출할 때 함께 인출하며 암기하였습니다.

구성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른다.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
중점	3~5세 모든 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모든 유아: 연령, 발달 단계, 종교, 가족 구성, 지역, 특이성, 장애, 문화적 배경, 언어, 비장애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것! 추구하는 인간상 구현을 위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반영하여 구성한다. → 누리과정 구성시 고려해야 할 최소 / 최대사실적 역량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3~5세 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한다. → 유아가 직접 경험하고 주체가 되는 교육과정 0~2세 보육과정 및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유아의 연령에 불합치 않고 자연스레 연계되도록 구성 1일 4~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목적, 목표에는 특성을 유지하되, 유아의 교육적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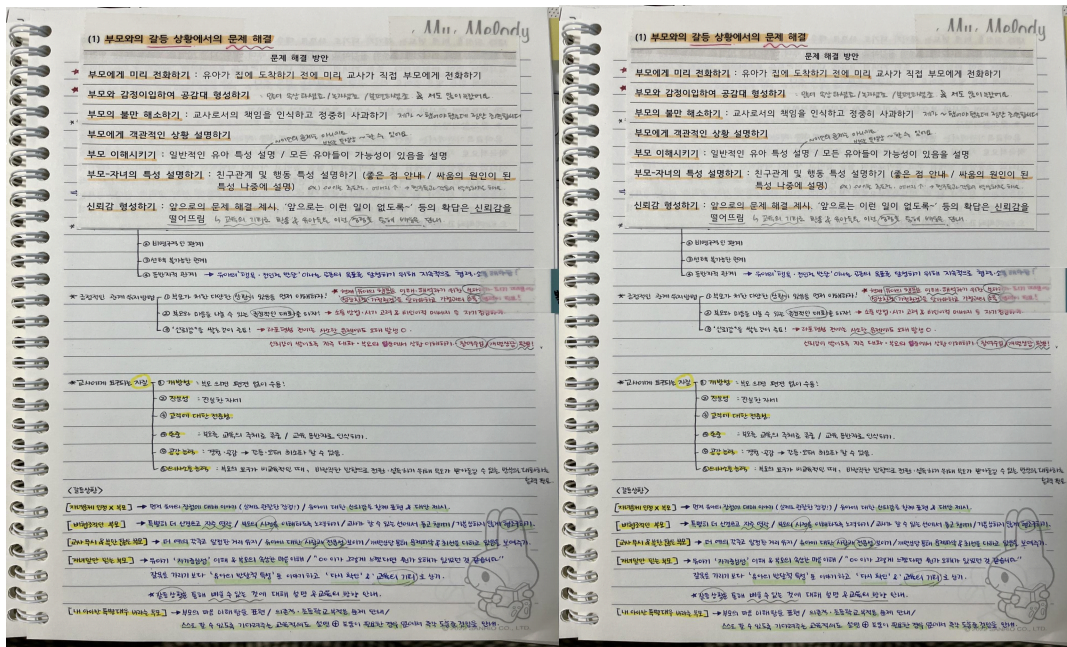
5) 건강 · 안전&법

- ♣ 건강, 안전은 교재를 정리하여 단권화 한 내용과 자료로 주신 응급처치 내용을 분배해 매일 조금씩 공부하였고, 건강 · 안전과 관련된 법은 내용 속에 녹여 자연스럽게 함께 암기하였습니다. 7대 안전교육과 아동복지법의 안전교육 내용은 매일 백지쓰기하며 암기했습니다.
- ♣ 저는 개론, 각론을 암기하는 것에 시간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법에는 시간을 많이 할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강의시간에 우선적으로 보라고 말씀해주신 내용만 정리해 계속 반복해서 읽으며 암기했습니다.

[4월부터] 논술 공부 시작!

- ❖ 저는 논술을 쓰는 규칙조차 모르는 말 그대로 백지상태였습니다. 그래도 교수님께서 번호 쓰기, 교정부호 사용, 체계 잡는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주셔서 금방 익힐 수 있었습니다.
- ❖ 논술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아직 제 스스로 암기가 완벽하게 되어있지 않았고, 서론과 결론을 쓰는 것도 어렵게 느껴져 한 문제를 푸는데 2시간씩 걸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막연한 마음에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암기가 완벽하게 될수록 논술 쓰는 것에 자신감이 붙었고, 논술 강의 시간에 교수님께서 세심히 봐주시고 지도해주셔서 50~55분 내에 쓰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 ❖ 또한 모범답안을 주시기 때문에 모범답안을 꼼꼼히 읽으며 참고할 수 있는 어휘나 문장들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 ❖ 그리고 해이실을 암기해 둔 것이 논술을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이실 속 내용을 활용해 좀 더 풍부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 논술공책을 만들어 한쪽에는 교수님께서 주신 개요도를 붙이고, 한 쪽에는 보완할 내용 / 참고 어휘/ 문제와 관련된 이론/ 읽기자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 정리한 문제들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고,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암기했습니다.
- ❖ 논술공책은 2차와도 연결되는 내용이 많은 것 같아 2차를 준비할 때도 반복해서 읽으며 유용하게 사용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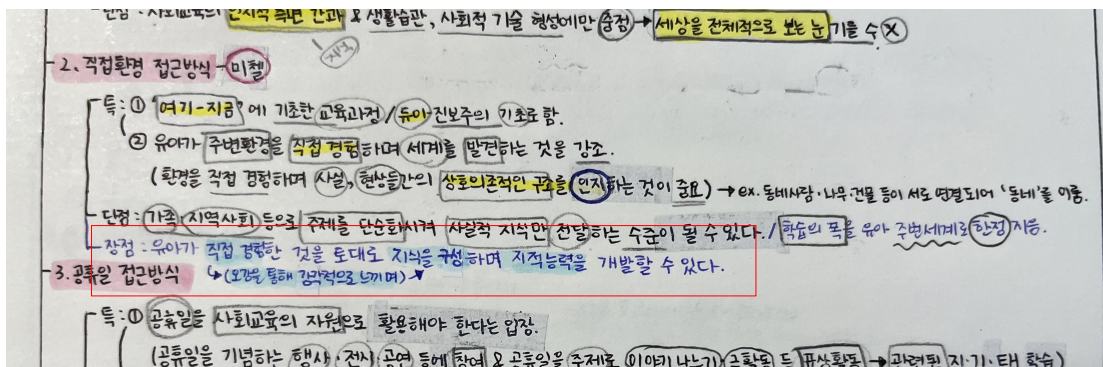
[7월~8월] 영역별 문제풀이반

1) 암기 다지기(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지 않기!)

- ♣ 저는 6월까지의 암기가 완벽히 되지 않았고, 계속 내용을 정리하고 암기를 보완하였기 때문에 7월이 돼서야 제대로 내용을 내면화하고 암기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7월부터는 인출하는 시간을 줄이려 노력하며 암기가 부족한 부분을 포스트잇에 적어 집에서 준비하거나 자기 전에도 볼 수 있도록 붙여두었습니다.
- ♣ 유아교육성격부터 운영까지 계속해서 반복 인출하였고, 임의로 내용을 제외시키지 않고 강의에서 교수님께서 다뤄주신 부분은 모두 공부했습니다.
- ♣ 완벽하게 암기된 부분도 안다고 생각하고 빠지 않고 잊지 않으려 계속 계속 반복했습니다. 계속 반복하니 인출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느껴졌고 그런 것에서 성취감과 즐거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 ♣ 그리고 교재를 다시 한 번 읽어보며 잘못 이해했던 부분이나 빼먹었던 부분을 추가하며 이해를 다졌습니다.

2) 문제 풀며 오개념 다잡기

- ♣ 7, 8월은 문제풀이 강의로 이루어졌는데, 박수민 교수님께서 서술형을 풍부하게 쓰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내용을 많이 적어야 하는 문제들을 많이 내주셔서 이때 시간 안에 문제를 풀려고 연습한 것이 9-10월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 처음에는 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해 “이대로 괜찮은 건가??” 싶은 생각에 교수님께 고민을 이야기 했더니 이 시기에는 원래 그런 것이라며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하는 시기라고 격려해주셔서 불안감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 ♣ 25년도 시험 2교시가 답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많아 시간이 부족했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교수님의 서술형 문제들로 연습한 덕분에, 시간은 촉박했지만 못 풀 문제없이 모두 답안을 적어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2) 나를 믿기

- ♣ 저는 1차 때는 스터디는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이 되지 않아 불안감이 저를 집어 삼킬 때가 많았습니다. 암기가 잘 되지 않을 땐 자책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항상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도 자신감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암기가 잘되지 않는 부분은 한 번 더 인출해보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갔습니다.
- ♣ 이 시기에는 개론은 한 단원 인출하는데 1시간, 각론은 한 영역에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인출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 자주, 더 많이 반복할 수 있었습니다.
- ♣ 1차 시험 전 날까지도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시험장에 들어갈 때는 "여기서는 내가 제일 준비됐다. 이 중에서는 내가 무조건 합격할 수 있지."를 계속 되뇌이고, 문제가 어렵게 느껴질 때는 "내가 어려우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어려운거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쓰자."라고 마인드컨트롤하며 모르는 문제도 빈칸으로 두지 않고 저의 생각을 적었습니다.

2. 2차 준비 방법

[2차 시험 준비]

1) 1차 시험 후, 2차 강의 수강하기

- ♣ 1차가 끝나고 일주일 정도 자유시간을 보내고, 2차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어떤 시기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임용이 처음인 저도 놓치는 것 없이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 ♣ 사례운영반 선생님들의 수업을 공유해주시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2차가 진행되는지와 수업 아이디어 등을 참고할 수 있었고, 교수님의 피드백을 함께 들으며 저의 수업에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 ♣ 그런데 1차를 준비하며 건강관리를 따로 하지 않아서 그런지 몸이 안 좋아져 11월을 공부하지 못하고 보내버렸고, 12월이 돼서야 제대로 된 2차 준비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나만의 만능틀 만들기

- ♣ 강의자료와 합격 선생님들의 수업 만능틀, 면접 만능틀을 토대로 저만의 만능틀을 만들어 암기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정책과 유아교육진흥원의 장학자료 등을 찾아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암기하였습니다.

3) 만능틀에 갇히지 않기 + 교수님의 1:1 개별지도 받기

- ♣ 하지만 너무 만능틀에 갇히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틀대로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갇혀서 똑딱거리기 일쑤였고, 수업시간도 항상 초과되었으며 면접에 대한 감도 잡히지 않았었습니다.
- ♣ 그래서 1차 합격생을 대상으로 교수님께서 개별지도를 해주시는 것에 감사하게도 선정되었지만 그 날도 여전히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개별지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드백 시간에 교수님께서 아이들이 행복한 것에 초점을 두고 자신감 있고 밝게 하라고 말씀해주셨고 그 말씀을 듣고 뭔가 제 마음속의 고정관념이 깨지고 감이 확 잡혔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외에도 아주 자세하게 조언해주셔서 개별지도 날 이후부터 더 열정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 ♣ 면접을 할 때는 생각을 말로 바로 뱉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떨리고 버벅였지만 최대한 예의 있고 밝은 모습으로 제가 준비한 교사로서의 생각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차 시험 당일]

- ♣ 2차 시험 날 한파가 와서 그런지 대기실에 히터가 틀어져 있어도 너무 추웠습니다. 꼭 옷을 따뜻하게 입고 가시고, 핫팩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첫날 면접 구상형 문제에서 처음 보는 말이 나와 문제를 본 순간 더 긴장이 되고 머릿속이 하얘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답형 1번 문항을 답할 때까지도 목소리와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좋은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합격하겠구나 싶어 너무 우울해졌고, 지금까지 저를 위해 같이 응원해주고 도와준 분들이 생각나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수업실연이라도 잘 해보자 싶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수업실연도 완벽하진 않지만 자신감 있게 하자! 라는 생각으로 하였습니다.
- ♣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쉬어도 쉬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동안은 계속 시험 보는 꿈을 꾸며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면접을 너무 망쳤다고 생각해 괜히 합격을 기대하면 실망도 커질까봐 "불합격해도 괜찮아. 이번에 열심히 했으니 내년에는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자." 라는 생각을 하며 불합격 후의 계획을 생각하며 보냈습니다.
- ♣ 하지만 2차를 보신 선생님들은 너무 우울한 마음을 갖지 말고 충분히 자유를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간절하기에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저는 결과를 기다리는 그 한 달이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에 우울함에만 갇혀있던 시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 서울 2차 시험 구상실 & 평가실 ♣

- 구상실은 감독관님이 처음 시작 시간만 보여주시고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계셨고, 구상하는 책상은 벽을 바라보도록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 평가실은 저는 문을 직접 열고 들어갔고, 교탁 앞에 책상과 의자가 놓여있었습니다. 면접관님은 세분이 앉아계셨고 왼쪽에 커다란 타이머가 놓여있었습니다.

3. 수면 및 건강 관리 방법

- ♣ 저는 공부 시작 전에도 잠이 많아 수면시간을 많이 줄이지는 못 했습니다. 그리고 수면시간을 줄이면 공부할 때 오히려 졸게 돼서 7시간은 꼭 잘 수 있도록 했습니다.
- ♣ 운동을 따로 하거나 건강관리를 하지는 않았는데, 1차 시험을 보고 몸이 너무 안 좋아져 2차 공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운동을 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공부만큼 나의 몸과 정신을 돌보는 시간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 ♣ 면역력을 보충할 수 있는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챙겨먹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4. 스트레스 극복 방법

- ♣ 저는 초수여서 임용시험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 알 수 없어서 혼자 뒤쳐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암기가 잘 되지 않거나 모의고사 문제가 잘 풀리지 않으면 불안감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쉬는 날을 정하지 않고 공부에 매달렸더니 우울감에 빠져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불안감이 들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잠깐 산책을 하면서 좋아하는 간식을 먹으면서 머리를 식히고, 일주일 중 하루는 오후 4시 이후로는 온전히 쉬는 날로 정해 영화를 보거나 맛집을 다니면서 공부는 잠시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 그리고 강의 때마다 교수님께서 해주시는 응원의 말들이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다시 힘을 내서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것처럼 제 마음이 지칠 때마다 할 수 있다며 이끌어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 공부하며 느낀 점 ♡

첫 강의 시간, 초수여서 정보도 많지 않아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수업이 끝나고 교수님께 교수님의 커리큘럼만 따라가면 되는 것인지 여쭙봤습니다.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는 교수님의 답변에 두려웠던 마음이 사라지고
교수님을 온전히 믿어야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공부에 흥미도 재능도 없었던 제가 박수민 교수님만 믿고 따라갔더니
최종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책들과 자료들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주변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매일 매일 자신이
공부하는 것을 믿고 교수님을 믿으며 중심을 잘 잡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의 시간마다 교수님께서 해주시는 동기부여의 말씀들도 메모해두었다가
그 주의 스케줄러 맨 위에 적어두고 공부하며 마음이 힘들 때마다 보며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만의 공부시간을 갖고 멘탈이 너털너털한 채로 토요일이 오면
교수님의 적당한 채찍과 응원의 말들로 다시 에너지를 꽉꽉 채워 일주일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이해가 쏙쏙 가는 설명에 강의가 정말 재미있고 힐링의 시간처럼 느껴져
학원가는 날이 즐거웠습니다.

물론 임용 공부가 길고 긴 혼자만의 고된 싸움이지만 그 시간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내는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임용을 준비하며 배우는 것들을 단순히 시험을 위한 지식으로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면화해 일상에서도 교사로서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꿈을 향해 달려가며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저의 합격수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